

이탈리아의 2012년 춘하절용 실의 국제전시회에서 보인 트렌드 <2/3>

◎ 이탈리아 실산업의 트렌드

2010년과 2011년의 이탈리아 실(絲) 산업의 트렌드(Trend : 方向)가 SMI(Systema Moda Italia) 연구소에 의해 보고되었다. 최근 10년 동안에, 2000년과 2001년이 오직 한번뿐인 예외인데, 그 외의 해는 양모, 면, 리넨 등의 생산에 있어서 실 산업은 마이너스의 영역에 들어가, 그 간의 글로벌한 경제공황에 의한 손실은 매우 컸었다.

2010년에 들어 방직 판매율은, 급상승하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SMI 보고는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놀랄만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2002년에 시작된 부정적 경제순환의 회복단계일 뿐이며, 2010년의 상향경향은 가장 나쁜 시기와의 비교결과였다.

내수가 26.6% 회복한 플러스 결과도 뒤를 밀어주었으며, 최근에 특징적으로 수출이 연속 떨어졌는데, 2010년에는 19.5%의 플러스가 예상되었으며, 해외시장은 이탈리아 방직이 개발한 신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숫자를 받쳐줄려면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

부정적 숫자는 2009년에 “종지부”를 찍어 작년의 생산활동은 적극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수년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후의 정열적인 회복은 생산성장 18.1%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바이어가 제시한 지표는 이탈리아 실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취직전선(就職戰線)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SMI Sample Survey에 응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에는 여전히 취직률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무역수지는 면이나 리넨 방직의 밸런스가 불리하게 되어, 처음으로 1,900만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어, 양모사의 약 1억 8,000만 유로를 예상하는 대외무역에서 이익을 상쇄(相殺 : 서로 빼서 손해도 소득도 없게 하는 것)하게 될 예정이다.

구주의 시장은 오름세 경향이다. 홍콩으로의 수출은 32.6%의 성장률로 톱(top)이다. 다

른 모든 주요시장에의 수출은 회복되었다. 루마니아는 12% 증가하였고, 영국에서는 56%의 증가를 보였고, 오직 하나의 예외는 불가리아의 마이너스 3.7%였다.♣